

유달산 둘레길 한바퀴... 도심 속 힐링 절로

테마가 있는 유달산 둘레길이 도심 속 힐링 코스로 각광을 받으면서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나들이객이 뜬 겨울철임에도 하루 평균 500여명에 이르는 탐방객이 둘레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기 비결은 도심과 자연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일곱 개의 둘레길이 두루 포진해 있는 데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편한 차림으로 부담감 없이 걷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레길 7개 코스 가볼만한 명소=목포시는 지난해 3월 유달산주차장~목포시사, 조각공원~여민동산~봉후섬 쉽터, 아리랑고개~수원지 뚝방길~학암사~유달산휴게소 등 3.4km를 신규 개설한 데 이어 기존 목포시사~조각공원 코스, 봉후섬 쉽터~낙조대~아리랑고개 코스 등 2.9km를 정비해 총 6.3km에 이르는 둘레길을 완성했다.

유달산 둘레길의 특징은 기존에 있던 코스에다 새로운 코스를 개발해 자연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숲길·뚝방길·밭뚝길의 원형을 최대한 살린 반면 난코스 없고 누구나 능선을 따라 걸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기존 등산로 중 안전사고 위험이 큰 바위너널 구간을 우회하는 숲길을 개설해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불

목포시 7개 코스 6.3km 완료... 접근성 뛰어나 관광명소 각광
다도해 절경·조각공원 등 볼거리 풍성 하루 500여명 찾아



거리를 위해 아름다운 다도해의 절경과 목포대교가 한눈에 들어오는 낙조대를 경유 하도록 배려했다. 동백나무 군락지를 활용한 숲 체험 공간도 마련해 휴식과 힐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했다.

7개 코스 중 낙조대는 목포시민은 물론 외지관광객의 사랑도 독차지할 정도로 인기다. 고하도를 따라 목포대교 아래를 드나드는 배들을 바라보는 운치가 뛰어나다. 목포의 과거와 현재·미래가 공존하는

학암사 앞길은 노적봉과 삼학도 영산강 원도심이 한눈에 들어오는 경관이 뛰어난 코스로 꼽힌다.

수원지 뚝방길도 많은 사람들이 걷고 싶어 하는 길이다. 짧은 길이지만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데크와 난간을 설치해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진화하는 둘레길 어떻게 변할까= 그동안 목포시는 3無도시(공원, 강, 그린벨트)가 없는 도시의 불명예를 안고 있었지만 전임시장이 목포의 동맥이라 할 수 있

는 철도폐선 부지를 웰빙 공원으로 변모시켰고, 현 박홍률 시장이 역점추진 중인 유달산 둘레길도 이 같은 불명예를 불식시키는 명소로 평가받고 있다. 유달산 둘레길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다.

목포시 공원녹지과는 제각각 이름과 스토리를 가진 둘레길 주변에 숲 가꾸기 및 야생화 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자생 중인 왕자귀나무, 편백나무, 비자나무, 동백나무, 단풍나무 등 특색 있는 수종들의 군락지를 정비하고 가꾸어 후계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둘레길이 지나는 조각공원은 결혼 장소와 사진촬영의 최적지로서 꽃양귀비, 금계국, 사스태디지를 500평의 공지에 파종해 4~5월부터는 화려한 자태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과는 신규 사업으로 '명품 유달산 둘레길 및 친수 공간 조성'을 선정하고, 이를 역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사업은 폐쇄된 수원지와 노후화된 자생식물원 야외학습장을 재활용해 ▲친수 공간 1600㎡ 조성 ▲자연형 암반폭포 1개소 설치 ▲자생식물원 야외학습장 5000㎡ 리모델링 등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앞으로 유달산과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의 과거와 현재·미래가 공존하는 학암사 앞길은 노적봉과 삼학도, 원도심이 한눈에 들어와 으뜸 경관 코스로 꼽힌다.



유달산 둘레길 7개 코스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낙조대. 이곳은 고하도를 따라 목포대교 아래를 드나드는 배들을 바라보는 목포팔경 중 하나다.

유달산 관광 연계 '목재문화 체험장' 만든다

목포시가 목포를 상징하는 유달산의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에 나선다.

목포시는 14일 "산림과 연계한 시설을 유치해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달산 달성공원 인근(죽교동 271-2번지 일대) 총 7.5ha 부지에 사업비 30억원(지특 80%, 지방비 20%)을 들여 조성되는 목재문화 체험장은 교육장과 전시 체험관, 생태관찰로, 유아 숲 체험원, 나무 조각원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부지면적 7732㎡에 1400㎡ 규모로 건설

되는 종합 전시관은 목공예 전시관(캘리리)과 실내공방, 목재자료독서실, 세미나실 등으로 꾸며진다.

이곳에는 목재에 관련된 일반정보를 비롯해 목재제품 발달역사 소개와 함께 목공예 작품전시 등이 이뤄진다. 특히 난전시관, 자생식물원, 조각공원 등 기존 시설 중앙에 있는 종합 전시관 주변에는 유달산 둘레길과 연계한 목재문화 탐방로가 조성된다. 또 야외에는 간이 목재제재실과 다목적

야외 체험장을 갖춘 대규모 시설이 구축된다. 시는 이곳을 글라이더·오토·투호 등 직접 만든 목재품을 이용한 놀이공간과 장승귀기 등 야외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네·미끄럼틀·모험놀이대 등이 들어서는 유아 숲 체험원은 어린이들이 목재의 촉감을 느끼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놀이시설이 순수 목재로 만들어진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중국 카페리 운항 11년만에 재추진

中 선사 유치 총력... 닝보·저우산 항로 2017년 취항 목표

목포~중국 간 국제카페리 취항이 11년 만에 재추진된다. 이미 두 차례나 운항 실패를 경험한 만큼 물량 확보 등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목포시와 전남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상반기 취항을 목표로 목포에서 중국 닝보, 저우산 항로에 카페리 운항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중국 선사 유치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목포해양대 주관으로 불동량 유치와 운항 손실 보전금 등 관련 용역도 추진중이다.

직선거리 600km로 중국 상하이와 가장 가까운 목포지역에 지난 2002년과 2005년 두 차례 국제 카페리선이 취항했지만 막대한 운항 손실을 견디지 못

하고 중단된 상태다.

두차례의 실패를 지켜본 업계 관계자들은 닝보, 저우산 노선은 고려시대 한·중·일 항로의 기점으로 관광수요는 물론 농수산물을 위주로 한 화물유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치밀한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영춘 전남서부항운노조위원장도 "일정 수준의 화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운항손실을 막을 수 있는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정기영 세한대 교수는 "어떤 화물을 어떻게 유치할지 중국 어느 도시와 교류할지를 잘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수익성 없는 노선에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목포-중국 노선의 물량 확보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기독병원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도

목포기독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폐렴 적정성 평가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폐렴 적정성 종합평가에서 목포기독병원이 97.3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평균(66.7)과 종합병원 평균(79.2)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전국 최고점에 해당하는 것이다.

폐렴 적정성 평가는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 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객담도말 검사 처방률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객

담배양 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금연교육 실시율 ▲폐렴구균 예방접종 확인율 등 8개 항목에 걸쳐 각각 100점 만점 평가로 이뤄졌다.

목포기독병원은 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도 ▲폐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호흡기계질환 중 COPD 또는 천식 상병 점유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목포기독병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에서 종합점수 84.89점으로 1등급을 획득했으며, 전국 종합병원 평균(70.25)과 전체병원 평균(53.89)을 크게 넘어섰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남농 미술대전 수상작 특별전...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대한민국 남농 미술대전의 수상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에서 오는 4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1~5회 대회까지 수상작을 전시한 지난 2011년 특별전에 이은 두 번째로 6~10회까지 수상작 24점(대상 5점, 최우수상 19점)이 전시된다.

대한민국 남농 미술대전은 남종화에 대가인 남농 허건의 인간애와 예술혼을 이어받은 전국 공모전으로 지난 2006년 1회 대회 이후 10주년을 맞았다.

매년 전국의 많은 미술인이 참여해 수준 높은 작품을 출품하고 있으며, 능력 있는 미술인을 발굴하는 등용문이자 국내 손꼽히는 미술대전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박상범 목포시 문화예술과장은 "작가들의 창의적인 시각을 감상하며 예술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남농 허건 일가의 화맥을 재조명해 예향 목포 미술의 저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가장 제주도다운 리조트

환상의 섬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는 곳!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학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남로 1966-34 (영남동 225-4)

제주아이브

통나무 독채형객실	핀란드홍송을 직접 수입하여 정성껏시공한 프라이빗한 통나무 독채형객실
레지던스형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를 보유한 레지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골프투어 최적지	레이크힐스cc, 우리들cc, 롯데스카이힐cc, 핑크스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단, 차량이동시간임)
한라산등반 최적지	한라산 영실코스 15분, 성판악 차량으로 25분 소요, 한라산 등반 최적한 입지(단, 차량이동시간임)
쇼핑의 편리	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홈플러스 15분(단, 차량이동시간임)
얼리버드이벤트	주중 30%, 주말 20% 할인적용(단, 성수기·준성수기·연휴기간 제외)
렌트카 90% 할인	벨라 15평 통나무원룸 1박 + k5 or YF소나타 24시간 79,900원!! (비수기 주중 기준)
단체수요 시설완비	300명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학여행단, MICE가능, 5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홀 완비, 150인 수용가능한 아이브홀 완비, 조·중·석식가능